여수시 해양관광 접목 '중장기 스포츠 진흥계획' 밑그림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해양복합스포츠 센터 건립 등 48개 과제

8월 세부계획 완성…스포츠 행사·전지훈련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레저 중심지를 내건 여수시가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스포츠산업 진흥을 이끌 밑그림을 마무리하고 있다. 해양관광과 스포츠를 접목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대형 스포츠 행사와 전지훈련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이끄는 것이 골자다.

여수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시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여수시는 지난 6개월간 '여수시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더브릿지컨설팅에 연구용역을 맡겨 진행해왔다. 이번 연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한 스포츠 정책을 세우기 위해 마련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시민 설문조사와 여수시 의원·체육회 관계자 상담, 각종 보고회 등을 거쳤다.

그 결과 8대 분야 25개 추진 전략과 48개 실행 과제를 마련했다.

스포츠 진흥 8대 분야는 시민 스포츠, 스포츠 마케팅, 종목 스포츠, 스포츠 대회, 청소년 스포츠, 스포츠 기반 시설(인프라), 장애인 스포츠, 스포츠 행정 등이 8대 분야에 포함됐다.

연구 용역사는 이날 보고회에서 해양관광과 스포츠가 어우러져 연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여수 대표 행사인 '여수 거북선 축제'를 연계하고, 해양복합스포츠센터(가칭)를 건립하는 등 제안이 나왔다. 해양 산업과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 마케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수에 각종 전지훈련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안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걷기와 자전거 운동 등 생활체육을 확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진화와 청소년 엘리트 스포츠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체육(청소년)과 장애인 체육 부문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용역사 제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여수시는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받아 여수시 체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세부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최종적인 여수시 스포츠 진흥 중장기 계획(2025-2029)은 8월 이후 완성할 방침이다. 중장기 계획안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연간 250억원 상당으로, 여수시는 공공 체육시설 관련 예산 140억원과 체육행사 개최 예산 30억원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추려낼 생각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시는 편리한 교통과 숙박시설을 기반으로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며 스포츠 산업을 통한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라며 "이번 계획이 여수시의 스포츠 산업의 부흥을 이끌어 남해안 해양스포츠 관광 특성화 도시로 도약하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가 개최한 '스포츠 진흥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정기명 여수시장과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등이 내년부터 2029년까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광양시 전국 처음 휴대용 소형 종량제 봉투 내년 도입

빈 용기 반환수집소도 설치

광양시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 ℓ 종량제 봉투와 빈 용기 반환수집소를 새로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양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1 ℓ 용량의 소형 종량제 봉투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이 소형 봉투는 반려동물 배변 봉투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반려인들은 밖에서 반려동물의 분변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으로 가져간 뒤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왔다.

광양시는 기존 10~20 ℓ 의 종량제 봉투 규격 외에도 1 ℓ 봉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소형 종량제 봉투 도입으로 인해 반려동물 문화를 활성화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광양시 측은 기대했다.

1 ℓ 종량제 봉투는 돌돌 말거나 뽑아 쓰는 형태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광양시는 반려견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1 ℓ 봉투 도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소형 종량제봉투는 조례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마트와 소매점, 동물용품점 등에서 판매된다.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시판 배변 봉투와 비슷하거나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부터 광양시는 광양읍사무소 앞 공영주차장(칠성리 948-1)에 빈 용기 반환수집소를 운영하고 있다.

광양시가 이달부터 광양읍사무소 인근에 운영하는 '빈 용기 반환수집소'. 〈광양시 제공〉

이곳에서는 소비자가 주류나 음료의 빈 용기를 소매점 등에 반환할 때 돌려주는 보증금을 받는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반환 개수 제한과 적치 장소 부족 등으로 인해 빈 용기 반환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광양시는 빈 용기 반환수집소 설치를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협약을 맺고 개수 제한 없이 빈 용기 반환이 가능한 반환수집소를 설치했다.

반환수집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루 4시간씩 운영한다.

반환 대상은 재사용 표시가 부착된 빈 용기 제품(소주·맥주·음료병)이다. 반환 금액은 100~350원이다. 깨지지 않은 병을 깨끗하게 씻은 뒤 반납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도화 버스정류장 착공…하반기 완공

냉난방 시설 갖춘 66㎡ 규모 신축

고흥군은 지역민 숙원 사업인 '도화 버스정류장 신축 공사'를 최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버스정류장은 도화면 당오리 베이스볼 파크장 건너편 부지에 마련된다. 지난달 말 착공해 3개월간 공사를 거쳐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628㎡(190평) 규모 터에 냉난방 시설과 화장실을 갖춘 66㎡ 규모 정류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버스정류장 신축은 도화면민의 숙원사업이었다.

그동안 도화 버스정류장은 편의점 옆 5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있었다. 인근 식당 주차장과 정류장 부지가 뒤섞여 있어 버스 회차 공간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교통이 혼잡하고 이용객 교통사고 우려가 있었다.

고흥군은 지난 2022년 말부터 도화면 기관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화면사무소, 지역 군의원과 지속해서 정류장 신축 문제를 협의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정류장 터를 사들이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했다.

한편 고흥군은 녹동공영버스터미널과 고흥·나로도·과역 버스터미널 시설개선 사업을 벌여왔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버스정류장 신축으로 학생,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개선해 도화면 중심지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지난해 열린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 '워터샷 썸머 페스티벌'에서 입장객들이 시원한 공연과 함께 무더위를 날리고 있다.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서 15일 물 축제

인기 DJ 총출동 썸머 페스티벌

호남지역 대표 물놀이 시설인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가 오는 15일 축제를 열며 본격적으로 개장한다.

여수 디오션리조트는 이날 DJ DOC 소속 이하늘 등이 출연하는 '2024 워터샷 썸머 페스티벌'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인기 디제이(DJ)가 총출동하는 이번 축제는 이달 15일 외에도 오는 7월20일부터 8월15일까지 날마다 열린다.

이 축제에서는 시원하게 내뿜는 물대포와 흥겨운 DJ 공연, 물총 대결을 함께 즐길 수 있다.

15일 축제에서는 코미디언 김경진의 진행으로, DJ DOC 이하늘, DJ비비, DJ키씨, 배드키즈 등이 무대를 꾸민다.

다음 달 20일부터 진행하는 축제에서는 G.PARK 박명수, DJ찰스, DJ미우 외에도 20여 명의 국내 정상급 DJ들이 출연진에 이름을 올렸다.

디오션리조트는 다음 달 20일부터 물총 대여소를 마련해 물 축제 분위기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디오션 워터파크는 물대포와 함께 날아오르는 '캐논볼'과 72도 각도에서 맨몸으로 떨어지는 '다이렉트 슬라이드' 등 10여 개의 실내외 물놀이 시설을 갖췄다.

'워터파크 인피니티 풀'과 '실외 유아풀'에는 가져온 음식을 자유롭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바비큐존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김려근 디오션리조트 홍보기획실장은 "디오션 워터파크는 놀이 시설뿐만 아니라 바비큐존과 같은 이색 장소와 관객 참여행사를 마련했다"며 "워터샷 썸머 페스티벌이 여수를 대표하는 여름 물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올해도 1050상자 구매…10년 이어온 보성 감자 사랑

광주 본사 한국프라임제약

우리 고장 농산물 사주기 행사

광주에 본사를 둔 한국프라임제약㈜(회장 김대익)이 올해도 보성 수미감자 3000만원 상당을 구매했다.

보성군은 최근 한국프라임제약과 '우리 고장 농산물 사주기' 행사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한국프라임제약이 지역 농업인을 돕기 위해 사들인 물량은 보성 회천 수미감자 1050상자이다. 기념행사에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양승철 한국프라임제약 전무이사(현 벌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선종배 회천면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프라임제약은 지역 농업인의 판로를 넓혀주기 위해 10여년 전부터 해마다 보성 회천면 수미감자(10㎏)를 800상자 이상 구매해왔다. 지난해부터 구매량을 1000상자 넘게 늘렸다. 한국프라임제약이 사들인 감자는 임직원과 협력업체 선물용으로 쓰인다.

양승철(왼쪽 세 번째) 한국프라임제약 전무이사 등이 보성군(군수 김철우·오른쪽 세 번째) 수미감자 3000만원 상당을 구매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한국프라임제약은 광주에 본사를 둔 호남지역 중견 전문의약품 제조 기업이다. 전주 과학 산업단지에 생산 공장을 두고, 수도권에는 연구소와 개발부를 설립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605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2000억원 달성을 내다보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만천문대 천문과학분야 공모 잇달아 선정

이달부터 과학문화 체험행사

순천시는 순천만천문대가 최근 (사)한국과학관협회 '2024 두드림 프로젝트'와 전남테크노파크 '전남 과학문화 지원사업' 공모에 각각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최초의 평지천문대인 순천만천문대는 철새 탐조와 천체 관찰을 할 수 있는 복합형 체험관이다.

2024 두드림 프로젝트는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과학관' 행사이다. 순천만천문대는 다음 달 체험과 강연, 과학 마술 공연 등으로 이뤄진 과학문화 체험행사를 연다. 또 국립중앙과학관과 창의재단이 연계한 특별 체험도 진행한다.

'전남 과학문화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천문학 체험 '내 별 찾기'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이어진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야간 천문관측과 스마트폰 별 사진 촬영, 천문과 문화를 연계한 강연 등을 진행한다.

순천만천문대 관계자는 "'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에서 다양한 과학 체험을 통해 많은 이가 천문학에 흥미를 느끼고, 과학적 호기심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